

팔정도의 정념 禪의 원류

잡아함경 <상>



김정빈 <작가>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불리는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은 매우 방대하여 여러 부(部)로 분류되고 있는데, 아함(阿含)은 그중 한 부를 이루어 아함부(阿含部)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아함부는 다시 잡아함(雜阿含), 중아함(中阿含), 장아함(長阿含), 증일아함(增一阿含) 등 사아함(四阿含)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이들 네 아함은 단일 경전이나 하면 그렇지 않다. 잡아함경은 무려 1362경이나 되며 중아함경은 224경, 장아함경은 30경, 증일아함경은 472경을 모아놓은 경전군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아함경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아함경들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함경을 철저히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승경전들을 등한시하지는

것이 아니라 아함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없이 대승경전의 의미 또한 애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함경은 사성제(四聖諦)의 체계 안에 모두 수용되어 있으므로 잡아함경 또한 사성제의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 아함경이 선사상과 관련된 부분은 도성제(道聖諦)의 부분이 될 것이다.

아함의 도성제는 일곱 체계로 짜여져 있으며(내용은 생략), 그것을 모두 합하면 서른 일곱이 되므로 이를 삼십칠도(三十七道)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곱 체계를 대표



2

위빠사나는 정혜쌍수 수행 사마타 삼매 성취에 그쳐

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팔정도(八正道)이다(잡아함경 785 廣說八聖道經). 팔정도는 다시 계·정·혜(戒定慧) 등 삼학(三學)으로 정리되며, 팔정도와 삼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정견(正見) 정사(正思)=혜학(慧學)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계학(戒學)
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정학(定學)
삼학으로 구성된 아함의 수행체계는 3층

피라미트를 구축해 올라가는 것과 같다. 1층이 계학이요, 2층이 정학이며, 혜학은 3층에 해당된다. 팔정도에서는 혜학이 앞에 있지만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계·정·혜의 순서가 되는데, 선사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2층에 해당하는 정학, 그중에서도 팔정도의 일곱 번째 덕목인 정념이다.

정념은 다시 사마타(Samatha)와 위빠사나(Vipassana)로 나뉜다. 한역 아함에서는 사마타를 지(止), 위빠사나를 관(觀)이라고

번역하고 있다(잡아함경 187 止經). 아함에 의거할 때 부처님께서 사마타 수행법으로써 모두 서너번을 가지들 제시하셨고, 위빠사나 수행법으로는 오직 한 가지를 제시하셨을 뿐이다. 이 때문에 위빠사나는 일승도(一乘道), 즉 '오직 한 길'이라고 불린다(잡아함 535 獨一經 1). 사마타를 닦은 수행자는 여덟 가지 삼매(팔정도의 여덟 번째 덕목)를 성취한다. 그 말은 사마타 수행자는 삼매, 즉 정(正)만 얻을 수 있을 뿐 깨달음, 즉 반야지(般若智)는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위빠사나를 닦은 수행자는 삼매를 거쳐 깨달음을 성취한다. 따라서 위빠사나야말로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선(禪)이라는 말은 본래 범어 드야나(Dhyana)를 음역(音譯)한 말이다. 그리고 드야나는 정려(靜慮), 선사(禪思)라는 의역(意譯)으로도 알 수 있듯이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드야나는 팔정도의 여덟 번째 덕목인 정정과 유사한 뜻을 지닌다.

그런데 중국에서 발흥한 선의 경우 '선'이라는 말이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선은 생각을 끊거나, 마음을 넘어서거나, 한 생각 하기 이전을 지향하는 수행법이다. 다시 말해서 선은 순수직관(純粹直觀)을 통해 자신과 세계 사이를 가리는 모든 망념(妄念)을 타파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우리의 깨달음은 다섯 가지 기본적인 덕(德)인 믿음(信), 정진(精進), 마음챙김(正念), 선정(定), 지혜(慧) 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광범한 속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감각에 근거한 본능과 충동의 지배를 받는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인 삶을 향해 보다 노력한다면 우리의 정신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우세해지고 결국은 다섯 가지 덕이 탁월해질 것이다. '덕'에 의해 우리의 모든 행위, 생각, 감정들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이러한 덕목들은 'Indriya(인드리아)'라고 총칭되며, '감관' '정신적 능력'이라는 뜻을 갖는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바라보고 느끼는 현상(現象)의 세계, 즉 유위(有爲)의 세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니르바나(Nirvana)라고 불리는 열반, 즉 깨달음은 무위(無爲)에서조차 벗어나므로 완전히 증득할 수 있다.

불교학자 뿐만 아니라 불교를 접했던 많은 사상가들은 '무위'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데 주력해 왔다. 또 사상가들은 "고(苦)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뜻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실존적 불안이라고 알려진 근심, 불안 등을 뜻한다" "인간은 자신이 본질상 영연불멸하며 모든 것을 마음 놓고 충분히 지배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苦)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전혀 만족을 모르는 채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미움과 분노를 발산하고 싶은 대상으로 찾아낸다" 등 우리가 무위의 세계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본래 자성이 경험적 세계에서 따로 떨어져 있다는

"믿음 선정 등 5덕 개발 깨달음 이룰 수 있다"

자성 찾아 무위에서도 벗어나야

것이고, 그것을 알게된 우리는 본래 자성을 찾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본원적인 청정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믿음, 정진, 마음챙김, 선정, 지혜 등의 덕목을 개발함으로써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믿음과 정진은 불교적 사고가 지닌 종교적 성격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마음챙김과 선정은 요가적인 근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지혜는 철학적인 이해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덕을 개발하고 혁신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덕들이 충분히 성숙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무위의 세계로 발전을 접근할 수 있고, 공(空)·무상(無相)·무원(無願)이라고 하는 해탈의 문을 통해 열반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열반은 모든 언어와 개념을 초월하여 자아가 정지된 무어열반의 상태를 말한다. 불교란 본질적으로 깨달음을 찾는 종교이다. 부처님의 8만4천 법문은 바로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문들은 하나같이 법문을 듣고 있는 개개의 모든 대상들의 정신적 발달, 즉 '근기'를 살펴 살피는 것이다.

영국의 정통 철학인 경험론의 지지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을 스스로 검토하고 시험해서 그것을 깨닫고 보고 느꼈을 때만 받아들여야"고 강조한다. 이 뜻은 불교를 실제로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깊고 성숙한 통찰력이 요구되는가를 강조하는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hia.com)

에드워드 콘즈는 英 대표적 불교학자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 1928~1979)는 반야경 연구를 연구한 영국의 대표 불교학자. 독일 출생. 뮌헨대학에서 박사학위, 본과 함부르크대학에서 인도의 예지와 서양의 철학을 강의했다. 1933년 영국으로 망명한 그는 런던 옥스퍼드대학에서 심리학, 철학, 비교종교학을 가르쳤다. 영국의 서머셋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불교를 주제로 단행본 18권, 논문 92편 그리고 2백여편에 달하는 서평과 수상을 남겼다. <한글대승을 위한 불교>, <불교-지혜의 원천>, <인도불교사상사> 등 저자 국내 소개, <지혜의 길-다섯 가지 정신적 기능(The Way of Wisdom-Five Spiritual Faculties)>은 1964년 영국과 1980년 스페인에서 출간됐고, 1993년 인터넷 달마넷(DharmaNet)에서 전자출간됐다.

과학산책

우주는 왜 무에서 탄생했나 ①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다

우주론(Cosmology)은 20세기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학문의 하나이다. 그 성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주는 진화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생물의 진화는 19세기부터 다윈 등에 의하여 주장되어 왔다. 그 생물이 존재하는 지구도, 태양계를 비롯한 모든 천체도 모두 진화해 온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체가 존재하는 우주 공간 그 자체도 진화해 왔다. 그리고 생명에도 탄생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도 탄생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우주는 왜, 그리고 어떻게 하여 탄생한 것일까?

우주 공간의 진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진화보다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좀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론적으로는 아인슈타인(A.Einstein:1897~1955)의 '일반 상대성 이론(一般相對性理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우선 구체적인 현상부터 설명하기로 하자.

우주에 흩어진 은하를 관측하면, 은하는 서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만 들으면 우주의 모든 은하는 한 곳에서 사방팔방으로 날아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주에는 은하가 거의 균등하게 흩어져 있어서 우주의 중심인 것 같은 장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은하는 실제

로 멀어지는 현상과 같다.

아인슈타인은 공간은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일그러진다는 이론,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 이것은 중력(만유 인력)의 새로운 이론으로서 제안된 것이다.

처음에 이 이론은 우주와는 관계가 없었는데 프리드만(A. Friedman)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여 우주 공간

공간(無) 요동서 우주 태어나 상대성이론 우주팽창 예언

로는 움직이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은하가 존재하는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팽 반죽 안에 들어 있는 건포도 알이 빵이 부풀어 오름에 따라 서로 멀어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자. 빵의 반죽, 즉 건포도가 존재하는 공간이 팽창하므로 건포도는 움직이지 않지만 서로 멀어지는 것이다.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막 위에 그려진 점은 막이 팽창하면 서

전체는 팽창 또는 수축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공간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일을 '공간의 운동'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운동은 보통 물체의 운동과 완전히 같아서 그것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세기, 결국 관성(慣性)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간에 작용하는 힘에는 공간 자체의 물질의 양, 그리고 공간에 내재하는 에너지의 세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은하가 흩어져있는 우주 모습.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

현재의 우주는 팽창하기 시작한 세력으로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단계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공간 자체의 구부러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현재의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결국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축한다는 것이 된다. 모든 천체가 서로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가 서로 접근하면서 수축한다면, 우주는 현재의 모습과 같지 않다.

실제로 물질의 성질에서 그리고 현재의 우주 공간의 팽창 비율에서 백수십억년 전의 우주는 모든

물질이 그 구성 입자로 분해된, 초고온·초고밀도의 수프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우주를 '빅뱅 우주'라고 한다.

물질은 무수의 원자가 모인 것이다. 원자는 그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하나 또는 여러개의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자핵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인 것이다. 양성자나 중성자는 쿼크(quark)가 세 개씩 결합하여 형성하고 있다. 현재 물리학에서는 쿼크와 전자를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보고 있다. <계속>

월간 <과학 Newton>서 발췌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大韓佛敎 曹洞宗

宗正 박운파

부종정	정영봉
승정원장	윤지명
총무원장	윤송정
종회의장	신법련
감찰원장	강연봉
선원장	석덕운
포교원장	박달제
교육원장	강범해
호법원장	한학봉
문화원장	안송봉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2동 570-6번지
TEL : 02)642-2090, 20910(FAX 겸용)

대한불교 삼론종

宗正 대산 부종정 석봉 승정원장 각화

총무원장	혜공	중앙종회의장	대아
부원장	진봉	사정원장	신수
총무부장	청봉	재정원장	혜광
교무부장	인봉	호교원장	진진
재무부장	지연	호법원장	대운
사회부장	암도	교육원장	정봉
홍보부장	지겸	수선원장	대심
		문화원장	우담
		교리연구원장	현강

삼론종 종도스님들께서는
모든 신분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4-8
전화 : 02)3216-0165 / FAX : 02)3216-0166

한국대승불교 여래종

宗正 석인왕

원로원장	김무공	총무원장	신혜안
종회의장	신명안	호법원장	김범우
교육원장	김해동	포교원장	홍법룡

강원교구 총무원장	허법성	경북교구 총무원장	권도연
충북교구 총무원장	추월산	경기교구 총무원장	최범일
경남북부교구 총무원장	조법성	광주교구 총무원장	이동화
강원영동 분원장	김법성	경북북부 분원장	김태인
종립정법대학교학장	명안	성남불교연합회지원위원장	신순복

▶ 총무원: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2
(경북 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앞산 약사사)
전화 : 0475)731-2261

▶ 서울·경기총무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산 7 약사사
전화 : 0342)734-3205 / FAX : 0342)734-3205